

오늘 개성공단 3차 회담... 재가동·정상화 고비

재발 방지책 등 견해차... 장기화 가능성

朴대통령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15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정상화 여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책 여부 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가 커서 쉽게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반적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금강산관광 회담과 이 산가족 상봉접촉 제의 보류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측에 보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에서 “개성 공업지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런 전통문 내용을 3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13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우리측 역시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교류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가동 문제 역시 북한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과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하며 맞선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과 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간된 프랑스 국제관계 분석 전

은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과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하며 맞선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과 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문자인 ‘폴리티크 엔테르나시오날’(Politique Internationale) 여름호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 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방폐쇄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우중입경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화물차량이 빗속에서 개성공단 물자를 싣고 입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KTX 광주역 진입 방식 내년 하반기 결정”

국토부 “운영자 수의 연계... 입장 고려해야”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불거진 KTX 광주역 진입 여부 및 진입 방식을 오는 2014년 하반기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호남 고속철 광주역 진입 여부와 진입 방식은 호남고속철이 완공될 즈음인 2014년 하반기에 ‘세부열차운행계획’을 마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 등과 맞물려 2014년 하반기에 호남고속철 운영자를 결정해야 한

으로 반복 운전 ▲송정역에서 광주 역까지 일반 셔틀 열차 운행 등 4 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하남역 분기 후 신선(新線)을 통한 광주역 진입 ▲정읍역

분기 후 기존 호남선을 통한 광주역 진입 등 연결선을 통한 진입은 타당

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따라서 광주시는 ▲송정역까지 운

행 후 광주역으로 반복 운전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일반 셔틀 열차 운행 방식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송정역에서 셔틀 열차를 이용해 광주역에 다다르는 시간보다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게 도심으로 진출하기가 훨씬 빠르므로 셔틀 열차 운행 방식이 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정역에 정차한 뒤 조정실을 바꿔서(승객 입장에선 후진) 광주역에 진입하는 방안의 경우 송정역구내에서 건널선(하행선

에서 상행선을 바꾸는 선을 일컬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행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배로 늘어난다

전국 시·군·구의 허가민원 전담부서가 배로 늘어난다. 허가민원 전담부서는 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하고 허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해 이곳만 방문해도 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서울 용산구청

대극장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대상으로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안행부는 현재 6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허가민원 전담부서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227개 시·군·구의 과반수 이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를 배기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기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 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원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원료(각종 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로도 접

찾아오는길

선운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 건 물 2974 ㎡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 건 물 1107 ㎡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회원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거리 앞 건물) 또는 (지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읍 “술향기 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용모단정한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험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5억

▷두암동 5층 상가 건물 8.5억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 천 월3백만

대지/전답

▷니주평 평생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원도군 억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용시설 적합)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신창군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첨단 매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1,200만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2)3443-7211 016-712-6264

“조종사, 충돌 3초전 복행 시도”

아시아나機 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대한 미 당국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마무리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블랙박스 1차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조종사는 충돌 3초전과 1.5초 전 2번이나

당초에는 복행을 1.5초전에 한 번 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3초전과 1.5초전에 각각 다른 조종사가 복행을 외쳤다고 NTSB는 설명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오토 스로틀(auto throttle) 등 다른 기기들도 NTSB가 ‘비정상적 작동’(anomalous behavior)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조종사들의 속도와 고도, 복행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이 늦었을 가능성에 커졌다.

이는 조종사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오늘 광주 공청회

민주, 전국 4개지역서 개최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관련,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全)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하기로 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

에서 “지방선거정당공천반검토위 위원회가 오는 15일 광주, 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 4곳에서 공

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공청회를 마친 후 정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공청회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투표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10</p